

2012. 10. 18(목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12년 10월 17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보도자료



담당부서 : 도시안전실 하천관리과

| | | |
|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하천관리과장 | 이진용 | 2115-7860 010-8741-5851 |
| 청계천관리팀장 | 유봉현 | 2115-7854 010-3061-3131 |
| 담 당 자 | 송석주 | 2115-7878 016-736-9582 |

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: 6매

청계천 기습 폭우시 고립지역 사라진다

- 집중호우시 청계천 고립 방지위해 비상탈출 통로 설치 등 안전대책 마련
- ① 기습폭우시 수문개방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해 시민들에게 위험상황 인식
- ② 고립시 비상탈출 가능한 탈출통로 및 비상사다리 추가 설치
- ③ 고립 취약지점 '배오개다리', '세운교' 아래 인력중점 배치해 시민대피 안내
- ④ 경광등 및 비상사이렌 작동 등 안내방송 강화
- 미관, 관광 위주의 시설물 →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설물 유지관리
- 시, 기습폭우시 사전 대피, 안내방송 및 안전요원 통제에 적극 협조 당부

- 서울시는 갑작스런 폭우로 청계천에 시민이 고립될 수 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대비해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다.
- 청계천은 비가 내릴 경우 주변의 빗물이 한꺼번에 몰리는데다 15분간 3mm 이상 비가 오면 수문이 자동으로 열려 인근 빗물이 청계천

으로 쏟아지도록 설계되어 있다.

- 청계천은 경복궁의 서북쪽 백운동천, 옥인동천, 중학천, 남산쪽 지천등 주변지역 곳곳의 물길들이 모여드는 하천으로 조금만 비가와도 청계천에 설치된 수문을 통하여 청계천으로 바로 유입되는 하수 구조물로 되어 있으며,
- 특히 급 강우시는 주변지역에서 갑작스레 물이 수문을 통하여 물이 청계천으로 바로 유입되어 시민들의 긴급한 대피가 필요한 곳이다.
- 15분간 3mm 이상 비가 오면 수문은 자동적으로 열려 청계천으로 유입 되는데 이는 수문이 열리지 않으면 상류지역의 침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.
- 이에 대비해 다리 아래에는 시민이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1회용 우의를 비치하고 있으며, 경광등과 사이렌을 가동하여 안내요원이 호루라기로 빨리 나갈 것을 종용하고 있으나 시민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.



〈평상시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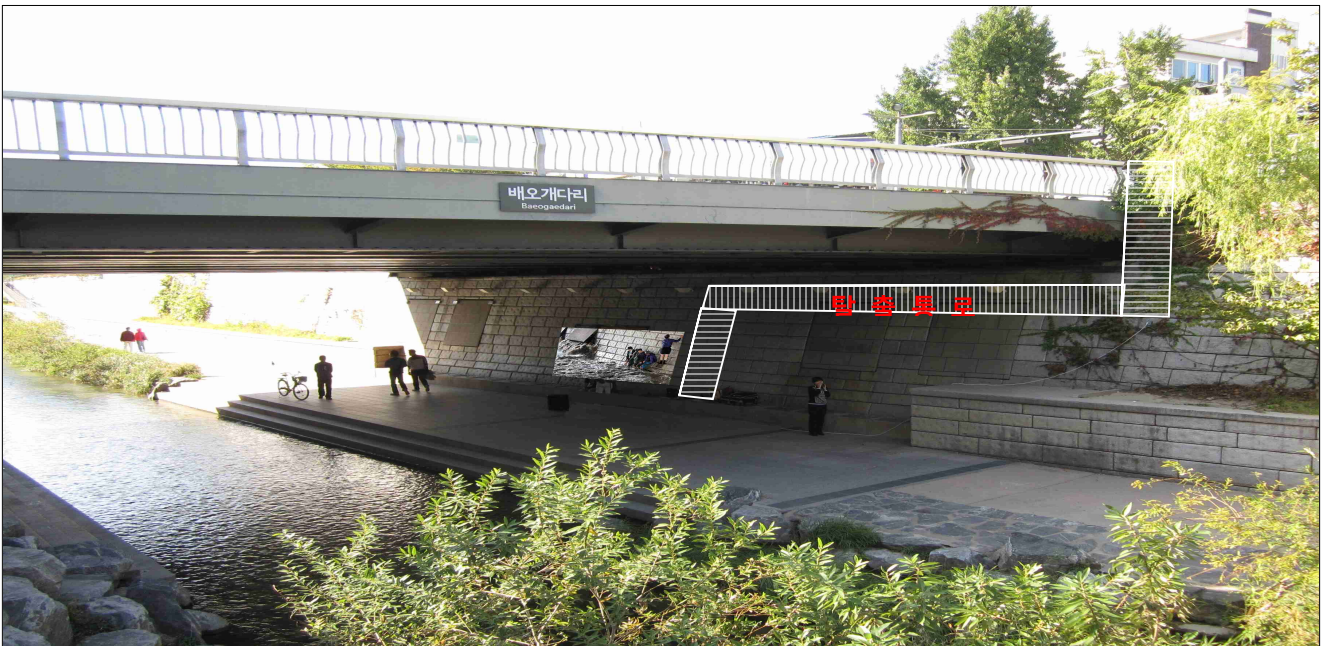
〈강우초기〉

〈강우지속시(15분 3mm이상)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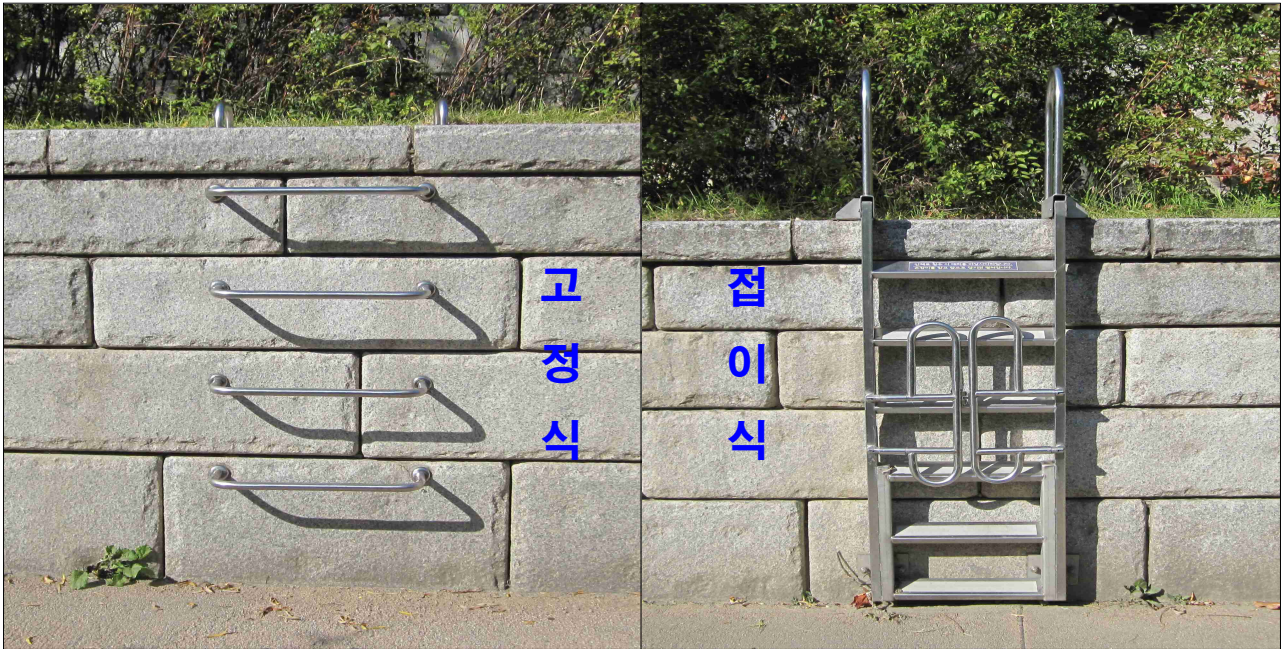
《비상탈출 통로와 사다리 추가 설치, 고립 위험 안내표지판 설치 등》

- 앞으로 서울시는 기습폭우에 대비하여 청계천 고립 취약지점인 ‘배오개다리’와 ‘세운교’에 비상탈출 통로와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비상시 시민이 고립되지 않고 바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- 먼저, 다리아래 수문이 있는 배오개 다리 하부 좌·우안, 세운교 하부 우안등 3개소에 시민이 고립시 바로 밖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비상사다리와 교량점검 통로 형식의 비상탈출 통로를 설치하여 바로 하천 밖으로 대피가 가능하도록 한다.
- 이러한 구간에는 인력을 중점 배치하여 시민을 안내하고 자동센서를 부착하여 수문이 열리기전에 경광등 및 비상사이렌이 작동하도록 하고 안내방송도 강화할 예정이다.
- 다리 주변 및 하천 밖으로 출입거리가 먼 곳은 비상사다리 총9개소를 확충하여 기습 강우시 시민이 바로 하천 밖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한다.
 - 추가설치 지역은 모전교 좌우안, 삼일교 좌안, 삼일교~삼각동 BOX 우안, 수포교 좌안 , 마전교~나래교 좌안, 세운교 좌안 배오개다리, 세운교 좌안, 맑은내다리 좌안이다.



〈비상통로〉



〈비상사다리〉

- 또한, 집중호우시 수문이 열리는 것을 모르는 시민들을 위해 대피하지 않으면 고립될 수 있음을 안내표지판(고립사진 부착)을 통해 사전 공지하고, 곳곳에 비상사다리, 진출입 등을 안내하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비상시 시민이 안전하게 하천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한다.
- 비상상황시 시민들이 밖으로 바로 나갈 수 있게 하고, 계속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들의 청계천 접근성 향상 및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진출입로 5개를 추가 설치검토 중이다.



〈진출입로〉

- 서울시는 그동안 미관과 관광위주의 시설물 관리에서 앞으로는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기습폭우시 시민이 고립되지 않도록 청계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.

- 장기적으로는 「청계천유역 환경치수 도시관리방안 학술용역」 과 현재운영중인 「청계천시민위원회」 에서 청계천 우·오수 유입차단 및 지연을 위한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.
 - ‘청계천유역 환경치수 도시관리방안 학술용역’에서는 빗물침투증가, 소규모 저류지 설치 등으로 유출수 지연에 대한 연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,
 - ‘우·오수 유입차단 및 지연’에서는 빗물 별도 차집관리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다.

[참고자료] 안내표지판 문구

시민 당부 말씀

청계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기습폭우시 안내방송 및 안내요원의 지시에 따라 밖으로 즉시 긴급 대피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비를 피하기 위하여 다리 밑으로 대피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, 교량 하부는 수문이 설치되어 있어 주변 빗물이 급하게 유출되어 위험하고 시민이 고립되기 쉬운 취약지역입니다.